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 농업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40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범기동지와 리철만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농업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계명상 농업과학원 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64(1975)년 1월 8일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과학원에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과학자들이 새롭고 창조적인 농기계를 하나하나 보이주시고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만들어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농업과학자들이 새로 육종한 논벼, 강냉이, 콩, 수수를 비롯한 알곡작물종들의 육종도식과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우월한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과학 연구성과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농업과학자들이 연구사업을 많이 하였다고 과분한 칭찬을 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으며 앞으로의 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 주시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농업과학원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는 나라의 농업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전환적기회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농업과학원이 나라의 믿음직한 과학연구기지로

훌륭히 전변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지난 40년간 농업과학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전적으로 과학원이 나아가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우월한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었다.

보고자는 나라의 농업과학 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평등업적을 경건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헤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높은 자주성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농업생산을 끌어올리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세차

게 일으켜 정보기술을 농업생산 실선에 도입하며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진과학기술식 보급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힘있게 벌려 앞선 연구방법과 선진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자질향상사업에서 원바람을 일으키게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들,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헤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기회를 높이 들고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근본방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때 시기, 때 단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목표와 방향, 전략과 전술, 구체적과업과 방도를 밝히줍니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시대의 요구, 인민의 지향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실현으로 찬란군민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우리 당이 밝혀준 투쟁과업과 방도들은 그 하나하나가 조성된 환경과 주제적력량, 먼 앞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언제나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올해에도 우리 당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갈 수 있는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혁명가가 지나야 할 사상정신적특질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승중한 정신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은 굳건히 계승되어왔기에 우리 혁명의 백색의 력사와 전통이 뜻이 이어지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 다져지게 되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않아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최근년간 우리 군대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백두산맥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

과 의지를 흔들어놓을수 없었다. 지난해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산적적양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었던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해왔기때문이다.

올해의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시련도 있지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 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편협과 림장은 애국의 출발점으로 된다.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오늘 천리마타일공장은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애국공장으로 자랑될것이다. 공장의 그 이터를 가보아도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우리의것을 세계에 빛내이려는 격전의 승리를 느낄수 있다. 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신념들의 피와 땀이 스민 이 땅의 모든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조국의 귀중한 재부였다. 하기에 그들은 전체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적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확고한 림장,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이신작적, 이것이 우리 일군들이 지나야 할 정신적공포이며 일본사라.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일군들이 선사라. 대오의 선봉이다. 일군들이 승중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로 가지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그 어디에서나 기적이 일어나고 강성국가건설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김 철 학

로써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열정이 깃든 자랑찬 로력적성품을 안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지켜낸 초소들은 그 어디라 할것없이 다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이다. 모든 초소, 모든 단위를에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야 올해의 총공격전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릴수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해나가는가 하는것이다.

지난해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일군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당이 준 물고기잡이파쇄를 받아안은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맥박치는 초옥이나나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였다. 그들의 전투적지는 사무실이나 가깝관이였으며 전투적지는 화선식이 아니라, 파격적이며 황금해의 새 령사자 펼쳐지게 된것은 당정책관철의 애로공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투쟁사나운 날 바다위에서 치열한 어로전투를 벌인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의 불굴의 투쟁과 선구자적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확고한 림장,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이신작적, 이것이 우리 일군들이 지나야 할 정신적공포이며 일본사라.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일군들이 선사라. 대오의 선봉이다. 일군들이 승중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로 가지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그 어디에서나 기적이 일어나고 강성국가건설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김 철 학

## 조선의 승리를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배후민족독립운동이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5년

## 조선의 승리를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한다

에 응하여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배후민족독립운동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 조선의 승리를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한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과 통일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바치신 공헌과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의 당과 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하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 조선의 승리를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한다

전진할것이다.

조국해방 70년이 되는 력사적인 올해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필생의 념원인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을 가져올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승리를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한다.

통일된 조선 만세!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헤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과 념맹원들의 결기모임이 7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청년동맹, 념맹, 판계부문 일군들, 청년학생들, 념맹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자동차기공공장 조영호 조광국, 사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로 빛내이기 위한 영웅적전군에 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백두의 념맹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경건히 옹호고수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관철전에서 선봉투사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며 가장 큰 영예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갖 비사회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를 더디고 올라서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와 열정을 안고 두뇌전, 기술전을 완강하게 벌려 논부신 과학기술성과로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부문의 청년들은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산, 경공업부문 청년들은 황금해의 새 령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며 생산장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청년전위들과 념맹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경건히 옹호고수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관철전에서 선봉투사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며 가장 큰 영예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갖 비사회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를 더디고 올라서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와 열정을 안고 두뇌전, 기술전을 완강하게 벌려 논부신 과학기술성과로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부문의 청년들은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산, 경공업부문 청년들은 황금해의 새 령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며 생산장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어리거지 질풍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이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의 청년들은 선한, 전력생산을 높이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켜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는데서 전력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강성국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세워지도록 하는데서 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성공양과 김정일에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에 힘을 넣어 청년들을 선군혁명투사로, 오늘의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동맹을 당중앙과 사상과 승검도, 방검검도 같이하는 선군혁명조직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위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념맹원들의 결기모임

녀맹일군들과 념맹원들의 결기모임에서는 념맹중앙위원회위원장 김경선의 보고에 이어 평양남도녀맹위원장 리분희, 보통강구역녀맹위원장 송양란, 대성구역 미산2동 념맹원 안성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찬란군민을 최후승리의 진격로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과 통일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바치신 공헌과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의 당과 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하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으로 더욱 강화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대가 강하여 조국의 운명도, 미래도 담보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원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며 아들딸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조소에 내세움으로써 군사국가의 위력을 더 높이 펼쳐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진과학기술인재들의 구조를 늘리고 열심히 학습하며 과학연구부문에 있어서의 남편들과 아들딸들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산과 축산, 수산물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임에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어 농촌지원사업에 주안점을 참가하며 새포자기 축산기지건설과 수산부문을 도와주기 위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10월의 대추진장에 자랑찬 성과를 안고 멋있게 들어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산짐부구 전투에 한사칼같이 펼쳐나서 자기가 사는 일터와 마을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성유지, 정성관리해나가는데서 모범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념맹조직들의 정력력을 강화하고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념맹원들 모두가 뜻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혁명적대장사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

#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우리의 호소에 똑바른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담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자는 절세위인의 승중한 애국, 애족, 애민의 력사적인 호소가 백두에서 한나에 이르는 이 나라 강토를 뜨겁게 작동시키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북남관계력을 새롭게 써나가시려는 단호한 결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힘찬 보복을 내졌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실천적조치를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새해벽두부터 상사통지 못한 잡소리와 대결행위를 드러내 보여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정계에서는 공공연히 《북선년사의 진정성》에 대하여 운운하고 우리의 력사적인 호소를 《한미공조분노론 대남개탄기》, 《국제적압박에서 벗어 나기 위한 대외공세》로 매도하는 망언들이 연이어 울려나오고있다.

지어 미국의 찬만부당한 《초강대북추

가제제》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인간스레기들을 내놓아 전연일대에서 반공화국베라를 살포하는 대결망동까지 다시 연출하고있다.

우리를 자극하는 남조선군부의 대결폭언은 더욱 잦아지고있으며 관계개선분위기에 상반없이 침략적인 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내놓아 온 겨레를 참을수 없는 분노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선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남조선당국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림장을 똑바로 밝히것을 촉구한다.

1.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뽀라살포와 같은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어린 림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새해벽두부터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대결망

동을 우리의 면전에서 빼앗아 버리고있다.

1월 5일에는 악질《달복》연재인 《대북공진단》소속 인간스레기들을 전선중동부 군사분계선일대에 내놓아 수시만장의 반공화국베라를 우리측 지역에 살포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오는 20일경에는 미국상선의 총동을 받은 악질불망종들이 미국땅에서까지 정의 북부정벌을 받은 불순반동레오선동영화를 수록한 DVD와 USB기억매체를 끌어어들여 우리측 지역에 살포하겠다고 뽀쳐 대고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당국이 아직도 《표현의 자유》와 《세계사특성》, 《법적근거의 부재》 등을 구실로 국제 판정지역에서 감행되는 대결망동 하나 저지시키질 없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이런 무능무력한 상대, 이런 당국과 열백민 마주앉아야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남조선당국은 대화나, 대결인가 하는 망자태일의 길에서 이에 대한 독특한 림

장을 밝혀야 한다.

2.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우리는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체는 최근이 동족을 반대하여 그칠새없이 벌리는 대규모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무모한 전쟁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행동을 그만둘데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새해정초부터 남조선군부는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증진할데 대한 우리의 평화적호적인 호소에 호응할 대신 《남조선-미국연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될것》이고 그레야 전투력이 유지된다며 북침핵전쟁연습의 지속적인 강행을 로골적으로 공언해나섰다.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새해벽두부터 전투기를 타고 침에한 서남해상 열점수역 상공을 돌리며 《북이 도발하면 주저없이 처절하게 응징하라.》고 췌쳐했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자주성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행위에 대

해서도 철저히 대응할것이며 징벌할것이라는 단호한 림장을 밝힌바 있다.

남조선당국은 나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하는 림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

3.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다는것이 우리의 림장이자.

그런데 아직도 남조선정계에서는 그것도 당국자들속에서 온 겨레의 진정한 통일 대화와 접촉을 현 집권자의 《소통이론》, 《대북통이론》실현에 복종시키려고 작정하고있다.

지어 《2015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하자.》는 해회한 망언들이 울려나오고 통일부장관이라는 자가 《한국주도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궤

변을 공개석상에서 꺼리낌없이 췌쳐대고 있는 정도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도 2015년에는 어떻게 하나 《북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서슴없이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대단합, 대단결문제가 일정에 오른 이 시국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대한 똑바른 림장을 밝혀야 한다.

북남관계는 결코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개선되는것이 아니며 실천적조치가 없는 빈말공부로 좋게 발전하는것도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적극적인 호소에 비껴있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똑바로 세겨야 한다.

북남대화의 진당도, 신뢰조성의 근원도 다름아닌 북남쌍방의 진정한 노력에 달려 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앞에 자기의 책임적인 림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각성있게 지켜볼것이다.

주제104(2015)년 1월 7일

평 양

해서도 철저히 대응할것이며 징벌할것이라는 단호한 림장을 밝힌바 있다.

남조선당국은 나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하는 림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

3.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다는것이 우리의 림장이자.

그런데 아직도 남조선정계에서는 그것도 당국자들속에서 온 겨레의 진정한 통일 대화와 접촉을 현 집권자의 《소통이론》, 《대북통이론》실현에 복종시키려고 작정하고있다.

지어 《2015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하자.》는 해회한 망언들이 울려나오고 통일부장관이라는 자가 《한국주도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궤











# 인민의 복된 삶이 꽃피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 실화 산골 집의 행복

대판군 읍 275인민반! 양력설날 아침 외진마을의 막바지 산골집인 리명복의 집대문은 닫혀있을 사이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칠 사이없이 찾아왔다.

《송미 어머니, 복 많이 받으세요!》

뜨악해 들어서며 누누나 하는 인사가 리명복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 집이야 이미 복이만큼은 다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코마루가 쩌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분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일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리명복은 은 나라가 다 하는 대판군 리명복의 어머니이다.

9년전 딸딸 송미가 뜻하지 않은 일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 그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어머니가 된것 같았다. 한창내이의 딸자식이 꽃같은 얼굴형에 없었는 어머니로서 심장을 잘리운것만큼이나 모진 고통이었다.

그 이름을 영영 가실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절망하여 리명복은 처음 몇해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집안의 아슬한 산비탈을 보면서 딸의 얼굴이 막막하여 울었고 가파로운 등자기를 내리면서 저도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누가 붙세라 고개를 짓속이고 켜어삼았다.

하지만 희망찬 새해 2015년이 밝아온 이 아침 그의 얼굴은 한없이 밝고밝았다. 때로 눈

가에 반짝이는것은 슬픔이 아닌, 눈물도 아닌 기쁨과 행복의 결정체였다.

한동안 은 나라에 유명해진 이 집 딸 송미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자리를 잃었다.

홍성인인 집안귀이 조용해지자 리명복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요즘 늘 그는 생각에 잠겨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하순 어느날 딸과 한공장에 다니는 청년이 함께벌떡 비탈길을 달려올라와 송미네 집대문을 두드렸다.

《송미 어머니, 송미가 신문에 왔어요.》

《우리 딸이 신문에?!》

《로동신문》을 받아든 리명복은 크게 놀랐다. 정말로 자기 딸이 신문에 왔던것이다.

딸이 왔던 얼굴을 다시 찾아가 8년세월의 만만사연이 담긴 《로동신문》을 받아든 리명복은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공백한 산골에 사는 자기 가정에 신문 한면이 실린것이 놀랄기도 하고 뒤흔들기도 한것이다 리명복은 송미네 부부에게 안겨주고 조선직업사중합병원 미용과과사실에서 걸린 문제들도 물어주었다. 이어 그는 송미네 부모들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이 마련한 지성인 문화기재와 조맹설비들을 대판군으로 보냈었다.

송미가 진화로 알려진 이와 같은 사연은 리명복을 여러번빙하게 하였다. 남편 립덕남도 끄찍한 기적이었다. 자기 딸을 위해 정성을 바쳐온 뒤흔들기도 장교로 알려진 리명복은 송미네 부부에게 안겨주고 조선직업사중합병원 미용과과사실에서 걸린 문제들도 물어주었다. 이어 그는 송미네 부모들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이 마련한 지성인 문화기재와 조맹설비들을 대판군으로 보냈었다.

《어보, 도당책임일군들이 또 오셨다.》

리명복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다. 도당위원회 일군들이 오셨고요. 자기 딸을 위해 정성을 바쳐온 뒤흔들기도 장교로 알려진 리명복은 송미네 부부에게 안겨주고 조선직업사중합병원 미용과과사실에서 걸린 문제들도 물어주었다. 이어 그는 송미네 부모들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이 마련한 지성인 문화기재와 조맹설비들을 대판군으로 보냈었다.

다음날은 도당위원회에서 일군들이 왔다. 송미에 대한 이야기와 송미가 난 후 송미의 차용치료와 그의 가정의 생활을 잘 봐주기 위한 문제가 도당위원회에서 문제로 토의되었었다.

새해의 이른아침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새 가구들을 마련해가지고 왔는가 하면 구경사이에 출장 왔었다는 최고책임일군도 그런 참된 보견일군, 훌륭한 당일군을 키워주신 위대한 대원님들께와 정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었다.

리명복은 가슴이 높뛰었다. 개인주의가 살만치는 자본주의 사회라면 남의 설움을 고사하고 기쁜 일조차 뒤돌아보지 않을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물론 기쁨과 행복까지도 제일처럼 함께 나누고있었다.

나지막한 산골집의 행복이 은 나라의 기쁨으로 되는 이 나라라, 이런 제도가 더 되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미처 다 알수 없었던 숭고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무지개방안 눈앞에 아롱거릴뿐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이때였다. 손님들을 바래우러 동구밖 멀리까지 나갔던 남편이 대판군에 들어서자 소리쳤다.

《어보, 도당책임일군들이 또 오셨다.》

리명복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다. 도당위원회 일군들이 오셨고요. 자기 딸을 위해 정성을 바쳐온 뒤흔들기도 장교로 알려진 리명복은 송미네 부부에게 안겨주고 조선직업사중합병원 미용과과사실에서 걸린 문제들도 물어주었다. 이어 그는 송미네 부모들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이 마련한 지성인 문화기재와 조맹설비들을 대판군으로 보냈었다.

## 군의 경사로 여기서

배천군 금산리에서 사는 영예군인 최은일동무가 마음먹고 잘 차려주려고 하면서 결혼식이며 신랑, 신부의 첫날밤 등 필요한 준비들을 맡아나섰다. 그리고그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날마다 결혼식준비정황을 알아보고 물어주었다.

은 영예군인이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마음먹고 잘 차려주려고 하면서 결혼식이며 신랑, 신부의 첫날밤 등 필요한 준비들을 맡아나섰다. 그리고그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날마다 결혼식준비정황을 알아보고 물어주었다.

## 《편리한 집으로 이사합시다!》

늘 집을 손질해주어 큰 불편 없이 살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종일 방안에 있다 싶어하는 영예군인김영호의 건강을 염려하는 구역책임일군들의 마음이 사려깊고 웅심깊은것이였다.

《해가 잘 비쳐드는 좀더 편리한 집으로 이사를 합시다!》

그들이 이사를 그날도 늘 영예군인가정의 건강과 생활정황을 알아보다 마음쓰던 구역의 많은 일군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집들을 축하해주었다.

## 바뀌어진 세바퀴자전거

《별려놓은 일이 많다 해도 영예군인을 찾는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소.》

이날 영예군인은 어머니당의 은혜로움과 우리 사회에 다짐되는 인간사회의 향기를 머금어주는 영예군인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책임일군은 말했다.

## 환 생명을 위하여 60여일

정양시 강동군 삼동리 54인민반에서 사는 조은별동무는 평범한 탄광노동자의 딸이다. 아직은 조국을 위하여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긴것도 없고 구별이 없는 길바닥에 이갈 걸어 구별이 없는 그 사회주의조국제도의 혜택으로 인생의 초연에서 꺼질뻔한 생을 다시 받아안게 되었으니 그 아름다운 아가비의 주인공들은 바로 김일성총애대학 평양의학대학 2학년 2학기 학부 후부의과학과와 의료일군들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의료일군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인간사명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9월 24일 저녁 대학병원 구급과 수술실로서는 치성경부농양으로 인한 종격염, 폐렴, 다장기부전으로 생명이 경계에 달한 구급환자가 실려들어왔다.

그가 바로 조은별동무였다. 퇴근준비를 하고있던 후부의과학과장의 의료일군인 주광학동무는 급히 수술장으로 들어갔다. 그때로부터 그는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수십일동안 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주광학동무뿐이 아니라 은 의료집단이 조은별동무의 치료에 떨쳐나섰다.

## 뜨거운 정 넘친 큰 걸음

희망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첫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의 밝고 활기에 찬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우리는 지난해 취재지에서 만났던 로력혁신자들의 모습도 찾아보았다. 옥류봉화피복공장의 최영희, 김영애동무들이었다.

새해 인사도 나누고 한해만에 만난 기쁨도 더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말했다. 새해 첫 전투에

## 옥류봉 화피복공장에서

떨쳐나선 장도파 다르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배인동지와 약속을 했습시다.》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말의 사연을 알고있고 우리는 그들과 곁을 함께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주어야 합니다.》

새해 양력설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명절을 뜻깊게 보내고있는 김영애동무의 집에 문득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애동무가 문을 여니 《반장동무,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새해인사를 하며 들어서서 사랑는 뜻밖에도 공장의 김명철 지배인이었다.

근 30년간을 공장에서 일해 온 로력혁신자이며 작업인원인 김영애동무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설날에는 물론이고 명절날, 기념일에도 늘 갖가지 음식과 식료품을 안고 찾아와 명절을 함께 먹고 구두도 해준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 일군들이었다. 작업이던년간에

##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지난해 일년내내 혁신자부부의 사랑을 떨쳐온 제품공인 김은희, 김향미동무들과 계명일, 김해경동무들의 뒤에다 바로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닌 일군들이었다.

로동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며 이끌어주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이 공장에서 지난해에도 년간계획을 넘달라나 앞장서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가지의 아버지처럼 올해도 공장일군들은 종업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는것으로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높은 생산실적을 내기 위해 활을 뛰고 또 뛰는 그들에게 공장로동계급은 혁신자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것을 약속하였다.

공장정문에서 이른 우리의 눈앞에 새해의 첫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한것은 일에 파묻혀 어머니의 생일마저도 잊을뻔 하였던 그에게 음식구제를 들려주며 등을 떠밀던 한창일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어저 그뿐이랴.

#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 인사말에 비끼 판이한 두 현실

위대한 선군명령의 촉촉속에 희망찬 새해의 힘찬 진군을 개시한 새 조국의 아침출근길은 약속동하는 젊음으로 충만되어있다. 서로 나누는 인사말은 더욱 정겹고 기쁘게된다.

《안녕하십니까. 전해보다 더 젊어졌잖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는 더 큰걸음으로 내달려야지요.》

해주는 아침마다 우리 인민이 나누는 인사말에는 보다 좋은 레일에 대한 확신과 광만이 넘쳐있다.

인사말은 길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품격과 함께 다는 이름 또한 내내내세, 말하자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에서 살아 일하는 긍지와 행복감이 비껴나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고 밖에 내비힐수 있게 하는 《창문》이라고 할수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마련해 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에서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수 없는 자주적인 삶의 권리를 향유하고있다.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삶이 국가적인 보살핌속에

##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가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선년사에 접한 중앙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선 직업적행동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대공세를 더욱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인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는 계급교양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올해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면있게 작정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력에 판정 김명철, 부판정 윤옥동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신년박람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지시사항을 다시금 새기며 계급교양관운영정황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난해 거둔 성과와 경험뿐이아니라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에 주목을 돌려주고있다. 서판과 반미교양관을 비롯한 계급교양관의 전반적인 교양부에서 사진

## 일군들과 강사들

에서 자신들이 맡은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해설강의를 실감있게 하는데 힘을 쏟고있다.

특히 미제수당이들의 야수적탄핵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며 목격자인 강사 리옥희동무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 올해도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않고 전진의 엄혹한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을 미제수당들이야말로 절대로 한하늘을 이고 삼수 없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이며

## 늘들과 거어어 된 걸음을 하여 친 백배로 복수해야 한다는 계급교양으로 무장시키는

데서 앞장설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년사를 받아안고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나가 이 동장의 열을 벌인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은 지금 김장속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들속에서 남강도 기계와 계급교양으로 대한 전철배의 복수심을 싹싹을 싹켜는 이 동장의 열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들쭉날쭉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문신지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